부르나이: 서부해안 바자우(Sama, Southern of Malaysia)

인 구 : 12,000(Joshua project.net)
언 어 : 서부해안 바자우어
종 교 : 이슬람
복음주의자 : 0.02%
성경번역 : 없음

개요 / 역사

말레이시아 사바의 서해안의 바자우족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한 유산종족으로서, 일반적으로 '바자우' 라고 또는 '바자우'라는 이름으로(Badjaw, Badjao, Bajao, Bajo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다. 바자우족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신들을 사마족이라고 부른다. 총인구는 대략 75만에서 90만 명으로 측정된다.(Sather, 1997). 그들은 술루제도, 보르네오 그리고 동인도의 섬과 해안들에 걸쳐서 방대하게 흩어졌다. 바자우족은 전통적으로 바다의 방랑자들로 알려져 왔고 광범위한 해상무역에 종사하며 배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현대의 바자우족은 거의 집에서 거주하는 자들이다(Yap, 1995:2). 일부 바자우족이 바다로부터 생계를 계속 유지하기도 하고 농업을 채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바 주에서는 바자우족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 서해안 바자우족과 동해안 바자우족이다. 토지와 바다의 양분은 쉽게 이 두 그룹을 지켜왔다. 서해안 바자우족은 서부와 북부 해안을 따라 조금 안쪽에 정착하여 쌀 재배와 가축을 기르는 숙련자들이 되는 반면에, 동해안 바자우족들은 사바의 동해와 특별히 셈포르나 섬을 따라 정착해서 바다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서해와 동해 바자우족의 구별은 육지/땅의 방향을 뛰어 넘는다. 방언사용에 대한 인식조사는 서해안 바자우족과 동해안 바자우족의 언어가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Baker, 1984:110).

바자우족 사람들의 기원은 불확실하다. 팔렌슨(1985)은 비교언어학을 통하여 천년 이상 전에 필리핀의 민다나오 근처 지점으로부터 원시 바자우족이 북과 남으로 퍼졌나갔다는 '분산 가설'을 제시했다. 팔렌센은 또한 A.D.1100년까지 바자우족 집단들이 남부 술루와 보르네오 북해안(116-123)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바자우족의 기원 전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는 술루 제도까지 14세기 후반 어느 시기라고 더 최근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언제 처음으로 코따 베루드

참고자료
http://www.joshuaproject.net

(Kota Belud)에 서해안 바자우족이 정착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현재 그들의 존재는 스펜서 세인트 존 이후 1850년대와 1960년대에 기록이 남겨져 있다(Yap:2).

생활양식

서해안 바자우족은 한 개의 언어(바자우어)를 사용하며 상호간에 이해 가능한 방언들로 이루어져 있다(Baker: 101,111). 또한 바자우족의 다른 방언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어디로부터 기원되는지 식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최근에 서해안 바자우족들은 동쪽 피타스(Pitas)의 테루산 만큼 멀리 있는 남서부의 쿠알라 페뉴(Kuala Penyu)에서 부터 사바의 해안 지역을 따라 퍼져있다. 그들은 주로 코따 벨루드(Kota Belud), 카왕(Kawang), 파파르(Papar), 투아란(Tuaran), 방기(Banggi) 그리고 푸타탄(Putatan)지역에 거주한다. 사바주의 코따 벨루드 지역의 코따 끼나발루와 쿠다트사이의 절반을 차지하는 템파숙(Tempasuk) 평지에 가장 큰 집단의 서해안 바자우족이 거주하고 있다. 코타 벨루드는 서해안 바자우족의 문화의 중심지이고 어떤 이유건 그곳은 엄밀히 말하면 바자우족 생활지로 간주된다.

서해안 바자우족의 수는 4 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1991년 코타 벨루드 인구조사에 따르면 가장 규모가 큰 바자우족의 그룹의 인구는 2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규모에 있어서는 바자우족 사회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사회 조직 단위는 핵가족의 뼈대가 되는 가족이지만 종종 가족 세대 간의 개발 주기의 단계의 따라 대가족까지 확장하기도 한다. 친족관계는 세대와 다양한 지역 기반 구조인 영토나 유산과 조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형성하고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바자우족 세대는 규정된 가족 역할보다 거주지 선택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

종교 또한 사회 조직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진정한 바자우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슬람교도가 되어야 하고 이슬람교도가 되지 않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바자우족 마을 생활의 외견상 라마단 절기와 하리 라야 푸아싸(Hari Raya Puasa)는 명백하게 이슬람교의식이다. 바자우족 공동체의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환영하는지는 알아보기 쉽다. 남자든 여자든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면 동등하게 바자우족 사회일원이 된다. 이슬람교는 일반적으로 종교 신앙 체계와 의식을 쫓는 추종자들이 되고 따라서 많은 마을 활동과 의미와 목적을 공유한다. 바자우족들은 많은 면으로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지만 이슬람교도 정체성을 공유함이 그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힘을 창조한다고 믿는다.

종교

서해안 바자우족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앙체계는 자연 정령주의자들이다. 다양한 영의 존재들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닌다거나 아기들이나 혹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먹는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에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린다. 전통적인 신앙은 이슬람교 신앙(현재의 신앙 체계)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라는 두가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선조로부터 이어내려온 다양한 미신 신앙들은 여전히 서해안 바자우족 사이에 일부 성행하고 있다. 서해안 바자우족들과 함께 수년의 시간을 보낸 연구원에 따르면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을 위한 선교사들이 없다고 한다.

다수의 교육을 받은 서해안 바자우족들은 국어인 말레이어를 읽고 쓸 줄 안다. 말레이어 성경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로 제작되고 있다. 바자우족 라디오 방송국은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들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영화”는 말레이어로 상영되기도 했다.
외딴곳에 있는 서해안 바자우족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여러 일화들이 있다. 하지만 주 연구원에 따르면 그는 오직 한 명의 기독교인을 만났다고 한다. 이 연구원이 보기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의 부족 마을에서 기독교인이 되어 공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환영 받지 못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내가 아는 서해안 바자우족의 기독교 모임은 없다. 그러나 몇몇의 모임들은 그 지역 안에서 다른 민족 그룹들로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 기독교인들은 바자우족 근처에 살거나 그들과 함께 일해서 바자우족 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다.

기도제목: 영적이고 견고한 요새.
1. 질병, 가뭄이나 다른 만성적인 병폐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통제는 사람들을 최소한의 외형적으로 이슬람교 형식을 취하는 의식을 통해서 답을 찾게 만든다.(예, 코란 암송) 이것이 서해안 바자우족들 영적 능력과 보호와 관련된다. 그것은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을 통해 사악한 힘이 사람들을 덜 괴롭힌다고 가르치고 의식을 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견고한 진으로 이라고 보여 진다. 이슬람교를 떠난다는 것은(그들의 마음에서) 악한 영향력을 부족 안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한다.
2. 선행에 의존(일반적으로 이슬람교가 관련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들은 세데카(sedekah)나 구호금을 통해 내세의 길을 용이하게 만드는(또는 죽은 가족들이 천국에 가도록 돕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또한 종교적인 의무인 라마다 기간 동안 금식을 수행하고 매일 기도와 이슬람력에 해당하는 특별기도 행위들이 연관되어 있다.
3. 서해안 바자우족의 마음에 있는 다른 요새는 바자우족으로서 이슬람교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자우족으로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바자우 민족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종은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해안 바자우족의 문화에서 부족 마을에서는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공동 활동이며, 이런 활동들은 자주 이슬람교와 연관이 있는 의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자우족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마을 의식들로부터 제외를 당함으로 아주 상당한 사회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4. 또 하나의 요새는 두려움이다. 이것은 현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영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해안 바자우족에게 접근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사실 학교나 직장에서 바자우족 개인들과 큰 기독교 민족 집단들은 자주 아주 광범위하게 접촉을 할 수 있다.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할 기회들은 많지만, 서해안 바자우족들에게 특정한 아웃리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아웃리치 봉사활동이 민감하게 다뤄져야만 할 부분이지만 두려움은 기독교 모임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1. 이들의 주요 언어로 된 성경의 번역이 시작되도록 기도하자.
2. 예수 영화가 이들의 주요 언어로 상영가능 하도록 기도하자.
3. 이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디오 자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도하자.